

울리는 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미국장로교회 전도의 본질과 실천에 관한 총회의 정책을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이 책자는 25년 동안 지역 및 세계 선교에서 개인, 회중, 및 협의회에 대한 반성, 지도, 및 동기를 부여한 풍부한 자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를 채택한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점점 더 변화하는 문화적 경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습니다. 교회는 포스트 모던, 포스트 크리스천 사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도기적이라고 부른 것에서 어떻게 존재 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인구의 1/3이 문화적인 적절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아직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1년에 출판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교회에 머물러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기 위해 외적으로 초점을 맞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 21).

이 결의안은 또한 개체 교회에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 개체 교회와 각 기독교인은 그들이 사는 특정한 장소에서 전도 책임을 맡을 때 그들은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은 세계에 대한 교회의 사명의 주요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장로교인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를 새롭게 다시 읽도록 권유합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하게 하시며” (신앙고백서 11.4) 필요한 용기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203차 총회(1991)에서 미국장로교회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채택한 결의안

The Presbyterian Church (U.S.A.)

Originally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판권소유 © 1991, 2016, 2019

미국장로교회 총회 사무국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본 출판물의 어느 부분도 발행자의 사전 허락없이 재생하거나 전자, 기계, 사진복사, 혹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달하지 못한다
(단 잡지나 신문의 서평란에 간단히 인용하는 것은 제외함).

미국장로교회의 당회, 노회, 대회는 발행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이 책자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



Presbyterian Church (U.S.A.)
Presbyterian Mission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800-728-7228

199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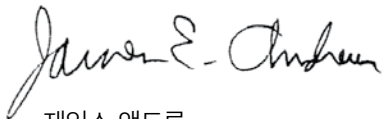
교회 목사, 목사가 공식인 당회 서기, 노회 및 대회 서기와 총무 여러분께

동역자 여러분,

제 203차 총회(1991)는 복음 전도를 교회의 삶에 있어서 크게 강조하는 일을 계속해서 지지하였습니다. 총회가 취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헌신을 잘 표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라는 문서를 채택한 일입니다.

총회의 지시에 따라 이 문서를 출판하여 이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을 위해 미국장로교회의 각 치리기관들과 회중에 보내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제임스 앤드류
총회 정서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에 대한

묵상

몇 년 전 오스틴 신학교에서 선교와 전도에 관한 Settles 강좌를 전달한 후 한 학생으로부터 복음 전도에 대한 장로교회의 태도를 설명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준비된 대답이 없는 사이에 어느 친구 교수가 “제지Restraint” 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인들과 함께하는 단어의 어딘가 에는 금지, 주저함, 저항, 회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재발행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독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관련이 있는 오래된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성서와 우리의 고백, 최근의 교단 성명, 그리고 당시 큰 범주의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적 토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nones”, “spiritual but religious”, “New Age”, “new atheism” 과 같은 표현은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 전통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2016년과 그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를 정독하며 이 점과 그 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질문에 주저하지 말고 아마도, 그것의 부분을 다시 써서 새로운 의지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게 임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가 재발행됨을 듣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고,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으며, 복음이 없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교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Rev. Dr. John R. “Pete” Hendrick
Professor Emeritus of Mission and Evangelism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Chair of the committee that wrote *Turn to the Living God*

차례

이 결의안이 나오게 된.....	2
요약.....	7
머리말.....	7
제 1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9
화해를 향하여.....	10
갱신을 향하여.....	10
보내심을 향하여.....	11
제 2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	13
예수님은 그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함.....	13
예수님은 포용적인 사랑으로 전도함.....	13
예수님은 종 되신 사랑으로 전도함.....	14
예수님은 치유사역으로 전도함.....	14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전도함.....	14
예수님은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함.....	15
예수님은 함께 나누는 사역을 통해 전도함.....	15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 전도함.....	15
예수님은 친히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함.....	15
제3부: 복음의 전체성.....	17
온 세상.....	17
1. 다 문화권 사람들	
2. 다 종교권 사람들	
3. 뿌리가 뽑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4. 세속적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5.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전체 교회.....	19
1. 교인, 당회, 그리고 회중	
2. 다른 치리 기관들	
3. 전도에 있어서 교회 대 교회관계	
4. 전도에 있어서 에큐메니칼 협력관계	
온전한 복음.....	21
결의와 다짐.....	22
미주.....	23
건의안.....	25
요약된 연구안내.....	27
과거와 현재.....	28
Engage 교과 과정.....	29
Notes.....	30

이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경위

총회 세계선교부와 전도 및 교회개발부는 1989년 3월 위원회 모임에서 양부서 위원장들에게 국제 교회개발과 전도를 위한 협동위원회와 함께 일하도록 스텝 외에 5인 위원회를 임명하는 일을 위임하였다...

... 동위원회는 미국장로교회가 1990년대의 10년 동안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힘쓰려고 하는 때에 적절하고 적극적이며 때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정책과 전략 서류들을 활용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성명을 작성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ECD Action 6-89 and GMU 267-03-89).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조날리 넬슨 장로(세계선교부 위원), 캐롤 위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전도와 선교학 교수), 존 핸드릭 (오스틴신학교 전도와 선교학 교수), 해롤드 커츠 (장로교 변방선교회 총무), 버질 크루즈 (루이빌 신학교 신약학 교수)

총회의 관계부서 직원으로는 이승만(세계선교부 부총무), 마거릿 토마스(세계선교부 신앙상호 관계담당), 조지 텔포드 (신학과 예배부 총무), 제퍼슨 릿취(전도부와 세계선교부 산하의 국제 교회개발과 전도 사무실), 모튼 테일러(국제 교회개발과 전도담당)가 수고하였다.

세계선교부 전도 및 교회개발부 위원회의 조처는 5인 위원회가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료들을 준비하는 그룹이나 동역 교회들 및 교회협의회들과 적절한 협의를 통해 긴밀한 조정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 첨부된 서류와 제안들은 국제 교회개발과 전도를 위한 협동위원회와 함께 일한 세계복음화 정책 및 전략위원회의 산물이다. 동위원회가 작성한 여섯 번째 초안은 지역교회, 노회, 대회 동역 교회, 교회협의회, 총회의 다른 부서, 그리고 세계선교부와 전도 및 교회개발부의 직원들과 위원회 위원들의 광범한 조언과 협의를 걸쳤다.

요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는 전도실천과 교회개발이라는 전체 교회의 우선순위 목표에 부응하여 준비되었다. 이것은 특별히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990년대의 복음화 전략을 세우고 진력하려고 하는 미국장로교회에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총회에 보내는 헌의안 형식으로 된 이 서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 그리고 **‘복음의 전체성’** 등 세 가지 주요 관심사를 다루고 있으며 전체 교회가 시행해야 할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첫 부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에서’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이 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돌보는 인간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고후 5:19) 하셨다.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계7: 9) 사람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대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친히 사신 기쁜 소식의 방법과 형태가 무엇인지 몇 가지 특성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함께 사셨으며, 그의 복음 제시는 보편적이며 포용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은 또한 종으로 전도하셨고 그의 치유하시는 사역이 항상 전도와 함께 갔다. 기도가 그의 행동의 밑받침이 되었고,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도와 주셨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심으로 그의 전도 노력을 증가시키셨다.

마지막 부분인 **복음의 전체성**은 전체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와 각 지역 교회들로부터 노회, 대회, 총회, 그리고 그 이상까지 미국장로교회 전체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많은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일에 세계 도처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합하여 헌신하는 일에 힘쓴다. 교회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토착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눌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요 3:16) 이기 때문이다.

머리말

미국장로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함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대하려고 한다.

미국장로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강조한다. 이 문서의 목적은 “1990년대의 10년 동안 특별히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쓸 교회들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이며 때에 알맞는 방향을 제공함에 있다.”¹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서는 성서와 미국장로교 헌법,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대한 교단적, 범교회적 성명이 주는 통찰들을 함께 묶으려고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에 대한 묵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를 새롭게 바라 볼 수 있음은 장로교인들에게 제자를 만들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의도의 표징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힘과 의지를 자극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하고 싶다면 다음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오직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

우리가 더 나은 증인이 되고 싶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모습이 우리를 복음서 그 자체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 문서는 복음 전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하라”(눅 10:37)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신선한 모습을 생각해보십시오.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 예수님을 실제 행동으로 볼 때 우리의 전도는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잡힌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The Rev. Dr. Jefferson Ritchie
Former Associate Director for Mission, The Outreach Foundation
and former mission co-worker in South Korea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도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을 가진다. 규례서와 최근에 신앙고백문서로 채택된 '간추린 신앙고백'²은 선교와 전도의 삼위일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는 그를 아빠, 곧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주권적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으시어,

남자와 여자, 각 인종과 백성을,

한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완전히 사람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묶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케 하시며,

교회와 문화 속에 있는 이상숭배를 폭로케 하시고,

오랫동안 말 못하고 살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간추린 신앙고백’ 27-32, 7-18, 52-57, 66-71)³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돌보는 인간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세상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선포하는 일은 모든 개인과 제도들이 이상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청하는 근본적인 부름이다 (살전1:9).

화목을 향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19 상 20 하).⁴

개혁신앙고백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주권적 사랑에 대해 말한다. 이 신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의 창조자를 피하여 숨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며,
거짓을 참이라 받아들이고,
이웃과 자연을 착취하며,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지구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간추린 신앙고백, 33-39행)

개혁신앙고백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주권적 사랑에 대해 말한다. 이 신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인간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다.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섬기는 사명을 받았다 (1967년 신앙고백 9.10).⁵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화해의 말씀을 인간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⁶

갱신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교회의 역사도 순종과 반역, 충성과 실패, 사랑과 무관심의 역사였다. 미국장로교회도 이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며 풍요한 삶을 누리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감으로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무관심 하였고 압제하는 일에 자리를 같이 하였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실패하였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한다.⁷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는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불안전하고 복음에 대한 충성도 부분적이다.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일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를 만드신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즐거워하게 하신다. (1967년 신앙고백 9.20).

성령에 의해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한 힘을 얻는다. 성령의 증거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갱신을 위한 은혜의 표시는 많고 다양하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가운데 점증하는 인식은 성만찬EUCCHARIST, 곧 주의 만찬이 ‘모든 회중의 마음 깊이에 선교적 확신을 새롭게 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8 공동기도, 예배, 및 성경 봉독은 신앙공동체의 새로운 근거로서 특색을 갖는다. 전세계에 있는 파트너 교회들의 경건과 자력발전을 위한 활동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강조점들과 이에 따른 이들 교회들의 폭발적 성장, 주류 교단들의 여러 교회들이 수행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갱신의 증거들을 보며 미국장로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아야 하겠다.

보내심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 20:21-22).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약속하신 왕국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강조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의 자세를 확고하게 세워 복음의 횡보를 높이 들어 사면을 밝히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와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에 대한

목상

그리스도인의 전도에 대한 증거는 종교 간 관계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주 묻는 말에, “불편하게”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1989년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를 시작했을 때, 이 새로운 성명서의 저자들은 이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총회는 이슬람교도와 유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도의 프로파일 연구를 채택했습니다.

“온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의 표현을 사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의 일부분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다른 부분은 “종교 간 활동”을 하여 둘이 결코 만날 수 없듯이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전도 스타일로 부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고 구원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행동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만남을 가지며,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우리는 더 무엇을 물을 수 있습니까?

The Rev. Margaret Orr Thomas
Retired Coordinator for Interfaith Relations
Presbyterian Church (U.S.A.)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

예수는 하나님의 전도자이었다. 예수께서는 시종일관 그의 사역을 통해 기쁨으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복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도의 방법이 곧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도임이 확실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1976년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의 약속이 교회가 하는 선교의 형태를 규정한다 (신앙고백서, 9.32). 연결되어 세계교회 협의회(WCC)의 문서인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선언*은 “선교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 (*선교와 전도*, 28절).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도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방법으로 전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기도와 성찰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전도사역을 따르기 위해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제안들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그 시대와 장소에 사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함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사셨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고, 그들의 관심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하신 전도의 방법을 따르는 일은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위하는 일이다. 미국장로교회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교회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소원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비인간성을 대항하여 싸우며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적대감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한다.”⁹

예수님은 포용적인 사랑으로 전도함

예수님께서서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셨으며, 여자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셨다. 예수님은 유대의 혁명가들, 사마리아인들, 지역사회 지도자들, 로마군인들, 수로보니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의 대상에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시는 일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셨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시라고 밝히셨다.¹⁰

비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초대받는 큰 잔치와 같다고 하셨다 (눅 14:15-24, 마 22:1-14). 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놓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로,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찾는 집주인으로 묘사하였다 (눅 15:1-10). 또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찾으시고 초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셨다.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본받아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열심히 사람을 찾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전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공동체의 교회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교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펼칠 때 나타나 보이게 된다” (규례서G-5.0103).¹¹

예수님은 종 되신 사랑으로 전도함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갔던 종의 형상을 취했다. 그는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으며 (막 10:45),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태도와 행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위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을 자기에게 이끌고, 그를 섬기게 하는 야심을 추구하기 위해 영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셨다 (눅 4:1-13).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시기 위해 기도로 씨름하심으로 예수님은 성서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 교회는 참된 증인들을 위한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해 거짓된 힘에 끌리는 유혹이 주는 상실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빌 2:5-8). 교회로 하여금 전도에 있어서 까지 지배, 거만, 소유의식, 혹은 조작을 버리도록 하는 영적 훈련은 투쟁과 충성을 통해 온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으로 전도함

복음서의 페이지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 보게 된다.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버림받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귀신들린 자들이 온전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과 권세 있는 일들을 통해 예수를 믿었다.

장로교인들은 현대의학과 기도와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을 역사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전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치유의 은사를 주로 강조한다. 치유사역에 대한 이 두 가지 방법들은 몸과 마음과 영을 다 포함하는 온전성 혹은 살롬으로서의 구원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강조한다.¹²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전도함

예수님께서서는 중요한 전도적 시도에 앞서 집중적인 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눅 4:14,6:12-13).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추수할 것이 많은 밭에 일꾼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마9:38).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셨으며 이 명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에 힘쓰게 하였다 (행1:4-8,14).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운동을 통해 전도에 관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에 계속 연결된다. 진지한 기도는 사랑과 관심의 다리를 놓게 되며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기도는 언어, 공간, 시간, 국경, 혹은 다른 장벽들에 매이지 않으며 젊은이나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교인과 전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도록 이끌며 힘을 준다.

예수님은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함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사랑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심정을 가지시고 전도와 사역에 임하셨다. 이 긴급성이 그의 생애와 가르침에 시종 반영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보내신 분의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가지셨다 (막 1:38, 요 9:4).¹³ 그는 크고 작은 사람들의 위기에 응하셨다 (막 6:30-43).¹⁴ 그는 자신과 그의 메시지를 배척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시며 우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찾으셨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교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는 삶 밖에서 성장의 능력과 교회의 서로 돌보고 지원하는 교제없이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각자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과 압도적인 인간의 고통과 사회의 파멸이 모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자로 하여금 무관심에서 벗어나 긴박감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도록 부르고 있다.

예수님은 함께 나누는 사역을 통해 전도함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일할 일꾼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의 사역을 확대하시고 증가시키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열 두 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도록 파송 하셨으며 (막6장),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도록 70인을 내보내기도 하셨다 (눅10장).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도록 위탁하셨으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전도의 과제 속에 그의 제자들과 계속 함께 일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해 줄 책임이 있다 (벧전 3:15). 전체 교회가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 훈련하고 지원하며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위해 가르치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 (엡 4:11-12).

예수님은 선포를 통해 전도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막 1:15). 그는 여러 번 제자들이 같은 메시지를 말하도록 보내시곤 하였다 (눅 4:18,19, 막 10,17).

교회는 지금도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초대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친히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함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전도했다. 그의 성품은 그가 가르치신 교훈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으며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이 본을 받고 그래서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성서에 나타난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 장을 시작할 때 밝혔듯이 위에 열거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전도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교회가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며 주님을 따를 때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더 많은 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에 대한

묵상

저는 25년 전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를 채택할 때의 기쁨과 열정을 기억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표현한 획기적인 문서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성으로 믿는 맥락에서 전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전도는 정의에 대한 대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정의와 전도 모두에 대한 총체적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으로서 25년 전의 것이지만, 1991년 당시의 기독교 증인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입니다. 특히 “전체 복음”에 대한 문서의 마지막 부분이 매력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에 복음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 섹션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 시대에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알림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 16)는 것입니다.

The Rev. Dr. Clifton Kirkpatrick
Professor of World Christianity and Ecumenical Studies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nd
Former Director, Global Mission Ministry Unit

복음의 전체성

지난 몇 십년에 걸쳐 복음은 전체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용어는 두 에큐메니칼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세계 전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면들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일련의 유용한 범주들을 제공해 준다 (데살로니가 전서 1:9).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다같이 단일하고 서로 연결되는 인간성을 함께 나눈다. 이 세계의 비극은 이 형상이 왜곡되고 인간 가족이 깨어졌다는 것이다. 전도 사력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이웃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영원자의 간절한 마음을 반영한다. 현대세계는 수 많은 종교, 이념, 문화, 사람들, 도시, 마을, 가난한 자와 부자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다.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역사의 한 특별한 시점에서 복음전도를 위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다 문화권 사람들

이 지구상에는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있다 (1991). 이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문화, 언어, 종족, 국적, 직업, 계급, 종교들이 그 범주들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속한 집단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다양하며 사회와 세계의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끊임 없이 유동한다.

어떤 큰 인간집단과 많은 작은 하부 문화집단들이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표현하는 토착교회가 없다. 이들을 우리는 세계의 격리된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비복음화 된 사람들의 집단을 세계의 대도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선언'은 모든 인류 지역사회와 문화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강조한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과제는 모든 인류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세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기까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선교와 전도',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문서, 25절).

미국장로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힘쓴다. 이 부르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 민감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나 기독교 단체들과 더불어 특정한 사람들과 그들의 집단을 만나는 일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다 종교권 사람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존경과 개방성, 그리고 정직성을 가지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다. 미국장로교회는 에큐메니칼 파트너 교회와 함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복음의 선포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개인적인 결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초대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선교와 전도',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문서, 10,41절) ...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초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는 일에서 예수를 따르도록 부른다 (세계교회협의회 샌안토니오 '메시지' 1항26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신앙을 만날 때 우리는 심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로 응답해야 한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증거하는 정신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존재하며 그들의 심오한 신앙적 헌신과 체험에 민감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을 섬기는 자가 기꺼이 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을 인정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샌안토니오 ‘메시지’, 1항25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요청한다. 가능한 곳에서 우리는 정의, 평화,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과 연대하여 일할 것이다.

뿌리가 뽑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 빈곤, 압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조건으로 인해 피난민이 되었다. 그들은 편안하고 친숙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때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변두리에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민의 물결이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 땅으로 몰아왔다. 세계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문 앞에 이른 것이다.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신 가운데서 이들 새로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노력을 더 할 책임이 있다. 곧 우리의 집을 개방하고, 축제의 식탁을 마련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들 난민의 상황이 어렵고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 교회들이나 다른 단체들과 긴밀한 연대적식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상황가운데서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을 돕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세속적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미국 자유로운 종교적 입장을 불허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강한 개인적 책임을 격려하지 않는 단일적인 종교로부터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기독교 소수자들이 동화를 요구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사회를 자유롭게 하려는 이른바 ‘세속화’로 알려진 운동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종종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세속화는 세상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세속주의 이념을 자주 증가시켜 왔고 그 결과 이러한 태도는 사회를 지배하는 전반적인 세력이 되었으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마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됨으로 그들은 자신들 삶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게 되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개인적 야망, 소비주의, 향락추구나 권력에 대한 탐욕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공동체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여러가지 다른 일들을 추구하게 되며 거짓되고 왜곡된 종교기관들이나 신흥종교 혹은 그들을 통제하는 그릇된 이념들이 그들의 공허를 채우게 된다. 인종, 국가 혹은 철학의 우상들이 악마적 힘이 되고 정의 추구하고 같은 중요한 일까지도 하나님없이 수행됨으로 전혀 정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기도 한다.

세속적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행되는 전도는 세속주의가 흔한 미국이나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추구에서 세속사회의 사람들과 공동의 입장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에 대항하는 교회의 공동 노력에 함께 힘쓸 수 있다. 교육과 전도는 교회가 그 믿는 바를 증거하는 일에 자주 연결된다.

전도는 또한 기독교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는 곳에서 필요하다. 교회는 압도적으로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세계에서 예수를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나누는 일처럼 긴요한 일이 없다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와 전도서문').

공평과 굶주림 가운데 있으며 물질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가난한자'는 또한 핍박과 압제로 고통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 이기도 하다. 불의한 경제질서, 정치권력의 불공평한 분배, 성차별, 가정과 지역사회의 붕괴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음을 느끼는) 집이 없고 소외당하고 옥에 갇히고 버림받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일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케 하며 정의와 해방에 대한 그들의 간구를 축복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전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예로 중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동하는 희망은 북미에서 방만한 보다 풍요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미국장로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을 증가하려는 이 때에 그 우선순위와 생활양식을 재고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가지 면으로 가난한 대중들, 세계의 도시들에 몰려드는 빈민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로교인의 삶과 선교에 대한 지침이 되는 원리가 1989년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메시지'에 잘 나타나 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의 선교적 관심과 증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우선순위이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약속을 지지하지 않는 선포는 복음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화해와 구원의 제공을 가리키지 않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 그리스도인 참여하는 일 역시 우스꽝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교회협의회 샌안토니오 '메시지', 1항32-34절).

전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있으며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미국장로교회는 이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각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는 이세계의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제자를 삼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일한다.

교인, 당회, 그리고 회중

세계전도는 그것이 지역전도가 되지 않는 한 실재성이 없다. 각 교회와 각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살고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전도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들은 세계복음화에 종사하는 것이다.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세상 속에 흠어들 때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88).¹⁵ 가정, 이웃, 일터,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는 그들의 증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복음이 말씀과 성례전에서 선포된다 (신앙고백서 1967 신앙고백, 9.36).¹⁶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면서 교인이 되고 싶어하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 인종과 종족의 기원이 다르거나 세속적 조건이 달라서 혹은 신앙고백과 관계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도 교인됨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각 교인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넓히는 은혜의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 (규례서 G-5.0103).

장로교의 당회는 그들의 교회와 교인 하나하나가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도를 위한 특별한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당회는 또한 교인들이 전도에 있어서 각 주와 나라와 세계 여러 곳의 치리기관들과 함께 복음전도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한다. 모든 장로교인들은 전지구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기도와 은사와 개인적인 노력으로 공헌하도록 기대된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58).

다른 치리 기관들

총회는 전도 및 교회개발부, 그리고 세계선교부를 통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전도를 수행하고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이들 사역 부서들은 미국안에 있는 개체교회, 노회, 대회로 하여금 국내와 해외에서 선교와 전도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갖도록 교인들을 교육하는 책임이 있다. 이 부서들은 치리기관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복음증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여기에 온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 힘쓴다.

세계선교부를 통해 노회들은 직접 해외선교를 조정하는 책임을 진 해외의 에큐메니칼 기관이나 교회들과 선교 파트너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장로교 교인, 당회, 노회, 대회는 이러한 파트너 관계나 다른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장로교회의 세계선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권장 받는다.

전도 및 교회개발부는 '장로교 전도: 21세기를 바라보며'라는 이름의 전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목적은 전체 교회 전도를 위해 고무, 훈련, 동원하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재활성화, 교회재개발, 그리고 개척교회 개발이 이 전도계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들이다.¹⁷

노회들은 각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속한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도록 권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별한 강조가 새로운 이민 그룹이나 전통적인 인종 그룹, 새로운 청소년 문화와 다른 하부문화 구조들을 위한 관심과 복음 접촉에 주어지고 있다. 대회와 협력하여 노회는 복음전도 사업을 위해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장로교회가 선교 파트너 관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교인들이었으며, 문화적으로 민감한 교회개발 계획은 이들 새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고 양육하며 전도하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데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이다.

미국장로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단체는 해당 사역 부서를 통해 총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장로교인들의 협력정신을 교회 치리 기관들은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도에 있어서 교회 대 교회 관계

미국장로교회는 80개가 넘는 나라들과 함께 세계전도에 힘쓰고 있다[1991]. 이들 가운데는 미국장로교회가 그 교회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파트너교회들도 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은 그들 자신의 전도와 세계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전세계적인 전도에 힘쓰고 있다.

우리 교단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 교회들과 계속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를 도울 것이며, 우리는 함께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에큐메니칼 협력관계

미국장로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 왔다. 장로교회는 세계개혁교회연맹, 세계교회협의회, 미국교회 협의회의 중요한 회원이다. 장로교인들은 또한 공식적인 교회 구조에서 독립되어 있는 선교단체와 전도에 있어서 더 큰 일치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기독교운동에 참여하고 있다.¹⁹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미국장로교회는 몸의 총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전도에 연합할 때에만 나타날 수 있음을 믿는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교회를 위한 에큐메니칼 협력은 적어도 다음 사항들을 의미한다:

- 믿음의 본질들이 긍정되는 한 기독교운동의 여러 다른 형태의 진실성과 순전성을 인정하는 일
-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교회구조를 존중하고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의 우리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그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
- 기성교회와 준교회 단체들과 협의²⁰ 하고 전도와 선교에서 연합적인 노력을 취하는 일

미국장로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의 일치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기도할 것을 서약한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하나되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는 소중한 사명이다 (요 17:20-24).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해 온 온전함을 보여 줄 때가 오기를 소망한다. 이때가 되면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연합된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은 성서에 나타나고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증거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는 모든 인간의 상황과 모든 삶의 영역 안의 사람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다:

- *죄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회복과 새 생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사랑의 용납이다.
- *죄에 지배 받고 비인간화 세력의 노예가 되고, 파괴적인 약물에 중독되고, 이것들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악의 주권으로부터의 해방이다.
- *사망을 직면한 사람에게*,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김의 삼킨 바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가시며, 무덤을 넘어 그는 우리를 승리한 교회에 들어오도록 환영하신다는 것이다.
-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를 견디어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인간 고뇌의 깊이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상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치유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버림받고 홀로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고아들에게 복음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분,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 *그들의 삶을 물질주의와 쾌락에 바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과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복음은 회개로의 촉구와 예수의 종 되신 삶을 온전하게 하고, 소박한 삶은 자유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통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은 의미와 목적을 가져온다는 자비의 말씀이다.
- *그들의 삶을 물질주의와 쾌락에 바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에 빠진 사람들과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복음은 회개로의 촉구와 예수의 종 되신 삶을 온전하게 하고, 소박한 삶은 자유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통치와 조화를 이루는 삶은 의미와 목적을 가져온다는 자비의 말씀이다.
- *무관심이나 삶의 무거운 바퀴에 지쳐 있는 사람, 인간 실존의 부정적인 힘에 대항하여 너무 힘겹게 아무런 성취도 없이 애쓰는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은 성령에 의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등불이 켜지고 우리의 실존에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며 우리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 *그들의 삶이 위협당하고, 착취당하고, 깨어지고 압제 받는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존하고 모든 사람과 집단의 존엄성과 정의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 *천재지변이나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땅과 소유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께서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다.
-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잊혀지고 버림받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깊이 사랑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성령을 보내사 생명과 용기와 존엄성과 평화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이다.
- *다른 신앙과 이념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사랑의 충만성을 계시하셨으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것이다.
- *불의나 전쟁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인간적인 제도나 사람들에 의해 인질이 되고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악한 제도, 구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의의 세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 *그들의 삶의 말년을 불안과 희망의 교차 가운데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계속 사랑하시며 교회의 삶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드리며 선한 청지기로 일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다.
- *그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6)이다.

결의와 다짐

성령이 주시는 힘을 입어 미국장로교회는 복음선포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한다.
-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 예수께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행위와 말로 선포한다.
-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풍성한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한다.
-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따르도록 부르며
-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초대한다.²¹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미주

- ¹ 이 결의를 위한 배경자료로 기록된 전도 및 교회개발부, 그리고 세계선교부가 취한 조치에서 인용함. 제 201차 총회(1989)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목적에 있어서 전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한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어 세상에서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1989년 총회록 제 1부 359쪽).
- ² 1990년 총회록 제 1부 68쪽.
- ³ 규례서에서 전도의 성서적 근거로 발췌한 이 내용은 이 서류 전체에 계속 인용될 것이다.
- ⁴ 성서인용은 모두 신개정판 성경에서 한 것이다 (영문판에서는 NRSV를 인용하였으나, 한글번역은 개역성경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 편집자 주).
- ⁵ 특정한 교회의 신앙고백 참조는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에서 출판한 *신앙고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⁶ '메시지: 흥정판'은 1989년 5월22일-6월1일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서 모인 세계 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전도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 ⁷ '복음의 긍정: 미연합장로교회로 하여금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미연합장로교회, 1977년 총회록 제 1부 545쪽)
- ⁸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선언' 21항, '선교와 전도'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나온 에큐메니칼 문서로 미국장로교회는 이것을 미연합장로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채택하였다 (미연합장로교회, 1983년 총회록 제1부 436쪽)
- ⁹ 미연합장로교회 에큐메니칼 선교관계 특별위원회의 헌장과 내규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것은 1969년 11월18일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되고 채택된 것이다. (루이빌, 켄터키: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 p.5).
- ¹⁰ 마태복음 11:2-6, 누가복음 7:18-23,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많은 토론이 있어온 주제이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며, 또한 그들의 사회적 신분의 열등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힘이 없는 약자들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무력한 사람들로 그들의 사정을 호소할 곳도 없는 기회가 박탈당한 불쌍한 자들이다 (뉴욕 메리놀 출판사 오비스 문고로 1982년에 출판된 바레이도 알바로 저, (기초교회공동체: 가난한자의 복음화, 15쪽).
- ¹¹ 규례서는 *신앙고백서와 함께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책은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에서 얻을 수 있다.*
- ¹² 에큐메니칼한 기독교 의료관계 진영에서는 치유하는 공동체의 본질과 과학적인 의술과 전통적인 의술의 관계, 그리고 치유의 은사와 함께 질병이 불의와 빈곤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생활태도와 결단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고 힘쓴다.
- ¹³ 이와 같은 긴급성을 강조하는 예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15-23에도 나온다.
- ¹⁴ 마가복음 5:1-2, 요한복음 11:1-44을 보라.

- ¹⁵ 신앙고백서 중 1967년 신앙고백 9.37을 보라.
- ¹⁶ 신앙고백서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200을 보라.
- ¹⁷ 전도 계획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알려면 미국장로교 전도 및 교회개발부 총무 안드레아 팝 목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100 Witherspoon St.; Louisville, KY 40202-1396.
- ¹⁸ 총회와 복음전도에 있어서 상호 연약관계에 있는 단체들로서 Outreach Foundation of Presbyterian Church (U.S.A), Medical Benevolence Foundation, Presbyterian Frontier Fellowship등이 있으며 이들을 Validated Mission Support Groups이라고 부른다.
- ¹⁹ 세계복음화 로잔 위원회는 많은 장로교인들이 관계하고 있는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 ²⁰ Parachurch 단체들에 관해서는 비장로교 선교단체들을 통한 세계 선교에 관계하는 모든 장로교인들에게 주는 미국장로교의 지침을 요구하는 건의안 C(13)을 보라.
- ²¹ 규례서 W-7.2001,G-1.0200, G-3.0300, 신앙고백서 1967년 신앙고백 9.31.

건의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를 이행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는 지역전도와 세계전도에 있어서 미국장로교회의 지속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아직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전교회가 전도에 대한 결의와 실천을 새롭게 하도록 권고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전도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 중요한 전도에 대한 안내와 결의에 따라 203차 총회(1991)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행동을 취하도록 건의한다.

- A.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를 총회의 공식 문서로 채택할 것;
- B. 총회 사무국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를 연구와 적절한 시행을 위해 미국장로교회의 치리기관들과 회중에게 보급하도록 지시할 것
- C. 세계선교부와 전도 및 교회개발부, 그리고 다른 적절한 부서들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실천하도록 지시할 것:
 - 1)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의 초대 책자와 함께 각 교회, 당회, 노회, 대회가 전도에 대한 참고와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제안들을 포함하는 안내서를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 2)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치리 기관들, 관계되는 다른 교회들, 교회협의회들, 그리고 기타 다른 단체들이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취하는 일에 미국장로교회가 적극 관심을 기울이며 응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일
 - 3) 아직 복음화 되지 못한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일에 미국장로교회가 계속 투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일을 치리 기관들, 파트너 교회들, 교회협의회들, 그리고 적절한 다른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곳이며 어디서나 복음전도를 힘쓰는 일 건의안 C (13)을 볼 것
 - 4) 각 회중과 노회와 대회가 아직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추진하고 인도하며 조정하는 일;
 - 5) 전체교회가 그 자원을 지원하고 제공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의 긴박성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여러 종류의 선교 지원자들을 배치하는 일을 증가시키는 일
 - 6)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가난한 사람들,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압제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전체적인 복음사역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일
 - 7)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봉사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증언을 타협하거나 이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적절하게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복음증거의 방법들을 강구하는 일
 - 8)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세계 도처의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선교와 전도를 특별히 강조하는 일
 - 9) 교인들로 하여금 타종교의 전통이나 비 기독교적인 이념들, 그리고 새로운 종교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다른 중요 종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
 - 10) 미국장로교회가 특별히 아직도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와 교회개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1세기를 바라보며'에 나오는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한 계획을 계속 실천하는 일
 - 11) 아직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을 목표로 한 미국장로교회와 파트너 교회들이나 교회협의회들이 수행하는 선교와 전도를 더욱 진흥시키기 위해 Validated 선교지원 단체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지원을 장려하는 일
 - 12) 기존 에큐메니칼 단체들 (세계교회협의회,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맹, 지역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일치와 전도를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협력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
 - 13) 비장로교 선교단체들을 통해 세계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장로교인들과 모든 수준에서 미국장로교회가 관계를 갖도록 그 지침을 마련하고 출판하는 일

D. G-30000([규례서] G-10.01026)에 따라 회중이 세상에서 전체 교회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당회가 그 주어진 책임하에 교인들을 이끌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조하도록 할 것

- 1)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일
- 2) 전도 및 교회개발부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전도방법 가운데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채택해서 실천하는 일.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전도훈련을 시키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새날의 여명 전도 강조'와 총회에서 나온 다른 자료 등 여러 자료가 있음을 주지시키도록 한다.
- 3) 교회의 공중예배는 교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힘쓸 것
- 4)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원하는 경험을 증진시킴으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일에 힘쓴다.
- 5)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교제를 베풀어 친절과 초청의 정신을 배양하고 나타내 보이는 일에 힘쓴다.
- 6) 전도에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교인들을 찾아내고 모집하여, 훈련해서 전도를 실천하게 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쓴다. 전도의 은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정과 감정이입의 정신, 타문화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능력 (다른 언어를 배우고 듣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 영적, 사회적, 심리적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사회의 제도를 잘 아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일
- 7) 그들의 지역사회와 미국 밖에서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쓰며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한 접근방법과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일
- 8) 지역사회 안에 아직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회, 대회, 총회의 각 부서 특별히 전도 및 교회개발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활용하는 일

E. 노회와 대회로 하여금 그 영역 안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그 전략을 마련하며 조정하는 헌법상의 책임을 힘쓰도록 권고하며 다음 사항들을 특별히 강조한다 (G-11.02103,G-12.0102).

- 1) 전도 및 교회개발부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개척교회 설립, 교회재개발, 교회 재활성화를 통해 해당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 2) 해당지역 안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사역과 교제, 그리고 교회개척을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각 교회를 지원하고 협력한다.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복음을 나누는 일의 헌신이 제시하는 접근방법과 지침을 따르며 다른 나라들 가운데 아직 복음화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도사역은 국제 교회개발과 전도 사무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한다.
- 3) 해외의 파트너 교회나 교회협의회와 함께 전도와 교회성장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선교부의 적절한 사무실과 협력하여 일한다.
- 4) 전도에 은사가 있는 교인들을 찾아내서 모집하고 훈련하며 일을 맡기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산하 교회들을 돕는다.
- 5) 최근에 복음화 된 사람들을 위한 개척교회나 전통적인 신학석사 학위를 가진 풀타임 목회자를 구할 수 없거나 그러한 목회자가 적합하지 않은 재개발이나 재개척을 필요로 하는 교회를 위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목회지도력 개발을 위해 신학교육 기관과 함께 일한다.

요약된 연구 안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전도의 초대

제 I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와 제 3부 “복음의 전체성”

- 서론과 제1부 “화해를 향하여”의 부분에 의하면 복음은 무엇인가?
- 어떻게 복음이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또 다른 길에 대해 말하는 제 3부의 “온전한 복음”부분에 대해 덧붙이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 II부: “갱신을 향하여” 및 “보내심을 향하여”

-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증거”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제 II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전도”

- 당신은 예수님께서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이 책에서 제시한 전제에 동의하는가?
- 예수께서 하신 전도방법과 양식 가운데 어떤 것이 귀하에게 인상적인가? 어떤 것이 귀하에게 도전을 주는가?
- 귀하가 복음서를 읽을 때 여기 언급되지 않은 다른 전도방법들을 발견 할 수 있는가?

제 III부: “온 세상”

- 여기에 제시된 세계의 “현실들”가운데서 어떤 것이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상황들인가? 이 현실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여기에 제시된 “현실들”가운데 귀하가 과거에 많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가?
- 우리의 전도전략과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광범위한 모자이크” 가운데 포함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또 있다고

제 III부: “전체 교회”

- 귀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훌륭한 일을 어디에서 수행하는가?
 - 귀하의 교회에서 전도와 손님대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 어떤 면에서 귀하는 전도와 증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 귀하의 교회는 노회, 대회, 총회에서 교회개혁과 전도에 어떻게 관계해 오고 있는가?

과거와 현재

규례서의 모든 인용문은 1991년판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에 언급된 실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원, 조직, 및 장로교 선교국 영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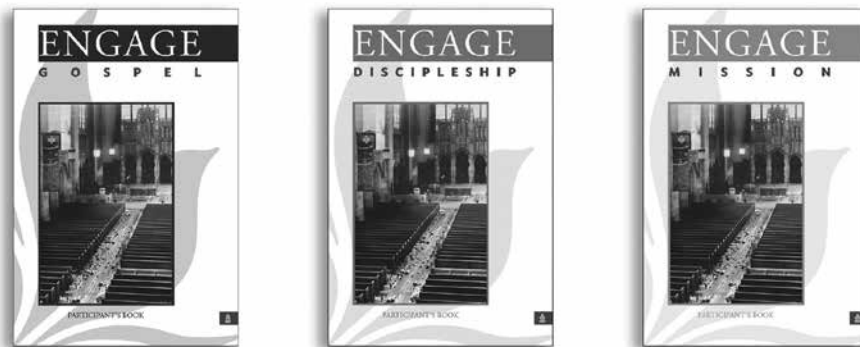
이전 주체	현재 주체
복음을 전하는 노력	Engage 교과 과정 및 기타 리소스 pcusastore.com
전도 및 교회 개발부	복음 전도부
세계 선교부	장로교 세계 선교부
국제 전도부	세계 선교부 지역 담당자
New Day Dawning 전도의 강조 Emphasis	Engage 교과 과정 pcusa.org/engage
국제 교회 개발 및 전도부	세계 선교부 지역 담당자
21세기를 바라보는 장로교 전도	1001 새 예배 공동체 OneThousandOne.org
신학 및 예배 목회부	신학, 형성, 및 전도 목회부
검증된 선교지원 그룹	더 이상 검증하지 않음; 그러나 Presbyterian Frontier Fellowship, Outreach Foundation 및 Medical Benevolence Foundation과의 공동 노력은 계속됨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Engage 교과 과정

교회는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회중은 지역 사회에서 효과적이며 관련성이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Engage는 미국장로교회와 협력하여 개발된 커리큘럼으로 전도와 회중 목회부 출판물입니다. **Engage**는 교회가 신앙을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역 사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 드립니다.

Engage 교과 과정은 다음의 세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Engage 복음**, **Engage 제자도** and **Engage 선교**. 총 7개 세션으로 나뉘어진 각 커리큘럼(참여자용 및 지도자용)은 교회를 지역 사회와 연결시키고 교인들로 하여금 성장하는 신앙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킵니다.



Engage Gospel은 변화된 개인적인 이야기와 성경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야기를 되찾고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Engage Discipleship은 교회가 신앙을 키우고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준비되도록 도와 줍니다. 예배, 기도, 성경, 영적 실천 및 친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Engage Mission은 교회와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파송된 사람들임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제자로서 성장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이 이웃과 지역 사회의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pcusa.org/engage 를 방문하세요. 교과 과정을 주문하시려면, pcusastore.com/curriculum 를 방문하시거나 800-533-4371 로 전화주세요. 영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Engage는 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봉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된 이야기를 요구하고 살면서, 그들은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 할 것입니다.”

— 레이 존스 Ray Jones, 신학, 형성, 및 전도, 장로교 선교국

